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0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10 부부극장 풍각지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30 KBC 모닝와이드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지방선거 후보자방송연설 (조진희 경기교육감후보) 55 기본종은날	10 좋은 아침
10 팩트 10	00 KGIS광주충국 6.4지방선거 법정토론회 (전남 담양군수 후보)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20 정치이야기 是非是非	40 강연 100°C 특선	15 사랑의 가족 45 수목 드라마 (골든크로스 스페셜)(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서울시장 후보자)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서울시장 후보자)
20 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개과천선)(재)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40 뉴스 특급	00 KBS광주충국 6.4지방선거 법정토론회 (전남 구례군수 후보)			30 영상기획 한국의 명소(재)
40 직언직설	20 KBS광주충국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경연방송	00 생활의 발견(재)	0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뉴스 10 세상발견 유레카(재)
5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마스크 마스크(재) 55 TV 유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 뉴스 10 용가시나타 40 헬로키티 아하! 과학탐험대 2	10 SBS 이슈인 사이드
50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신단 55 토티 생활체조(재)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30 똑? 똑! 키즈클럽	00 품의 보석 프리즘스톤 30 루키가 탐구생활
	00 KBS 뉴스 5 20 동물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지구촌 뉴스(재) 30 생생 정보통	20 2014 월드컵 응원쇼 뜨거운 함성! 기자 브라질로!	05 날씨와 생활 10 KBC 생방송 투데이
20 뉴스 특급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 여자)	45 MBC스포츠 2014 브라질월드컵 출정식 경기 (대한민국: 튀니지)	10 시사저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칼기 말 하나)
30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40 특집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5 MBC 뉴스데스크	00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KBS광주충국 6.4지방선거 법정토론회 (전남 지사 후보)	00 수목드라마 (골든 크로스)		
00 먹방쇼 맛의 전설	50 KBS 뉴스라인	1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따봉! 월드컵	1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오 마이 베이비
30 모쿠드라마 <싸인>(재)	50 네트워크기획 문화선책	0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다시 보는 대한민국 월드컵 ①:20 다큐멘터리 3일	30 MBC 뉴스 24 50 스포츠 다이아리 ①:05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40 집 나간 가족	①:30 소중한 나눔의 이야기	①:20 다큐멘터리 3일		①:05 SBS 컬처클럽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육아를 부탁해!>	14:45 곤	19:30 EBS 뉴스
05:40 엄마없이 살아보기(재)	10:10 리얼토크 여왕의 외출	15:00 지구를 지켜라	19:50 다문화 고부열전(재)
06:10 세계의 눈 <자연>(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15 마사와 곰	20:40 다크 오늘
07:00 곤(재)	11:20 세계탐험대 <오스트리아>(재)	15:30 꼬마가북 프랭클린	20:50 세계탐험대 <스리랑카>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똥똥 똥(재)	21:30 한국기행 (남도예술기행)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초대석	16:20 우당탕탕 아이쿠	21:50 EBS 다크 프라이미
07:45 로보카 폴리(재)	13:05 지식채널e	16:30 책갈피 요청 포보	22:45 한국기행 (황토 벽돌 집 짓기)
08:00 똥똥 똥(재)	13:10 사이판	16:45 Why-최고다! 호기심따지(재)	23:35 세계 건축 아틀라스
08:20 책과 땅(재)	13:20 풀꽃! 페퍼는 즐거워	17:00 방귀대장 똥똥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35 방귀대장 똥똥이	13:30 고강이 파티	17:15 꼬마버스 타요	24:10 한국 영화 특선
08:50 Why-최고다! 호기심 따지	13:45 반짝반짝 별명 클럽	17:30 로보카 폴리	(마스터 주부 퀴즈왕)(재)
09:05 책갈피 요청 포보(재)	14:00 머털도사	17:45 두디다공	
09:20 머털도사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퓌툰! 보나하니	
09:35 아기 고릴라 등등		19:00 세계 건축 아틀라스(재)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 I)	12:10 5분 과탐·생명과학 I
01:40 (국어 II)	12:15 수능 특강 <수학 I B형>
01:40 <영어독해의 기본 II>	13:05 <미적분과 통계 기본>
02:30 <수학 II>	14:00 <국어 B형>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재)	14:50 <영어 A형>
04:10 <과학>	15:40 <영어 B형>
05:00 <한국사(하)>(재)	16:30 <한국지리>
05:50 2013 포스 <수학 II>	17:20 <사회문화>
06:40 압축탐스런 <생명과학 I>	18:10 <경제>
07:30 2014 포스 <문학 II>	19:00 <윤리와 사상>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II>(재)	19:50 5분 과탐·생명과학 I (재)
09:10 <수학 II>(재)	20:00 수능특강 <국어 B형>(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1:00 <영어 A형>(재)
10:50 2013 포스 <수학 II>(재)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A형>
11:4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23:00 <영어독해연습①-종합편>

EBS플러스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50 <사회 4-1>
07:30 친절환 수학 익힘풀이 (6-1)	16:20 <사회 5-1>
08:00 한국사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16:50 <사회 6-1>
08:30 한자능력검정 시험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00 출거수 수학 EBS MATH	<전과목 6-1>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8:00 TV 중학 (영어 3-1)
09:50 <수학 I(하)>	18:40 <수학 3-1>
10:30 <도덕 I>	19:20 등업시공 (사회 3-1)
11:10 <국어 ③④>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국어)
11:50 <수학 II(하)>	20:40 <영어>
12:30 등업시공 (사회 1)	21:20 <과학>
13:10 <수학 I>	22:00 <수학>
13:50 <역사 I>	22:40 <수학 II>
14:30 <사회 II>(재)	23:20 중학e포스 영문법 3
15:20 만점왕 (사회 3-1)	24:00 영어로 보는 자연의 세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음 4월 30일 己亥)

36년생 뚝배기의 행운이 찾아 든다. 48년생 유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60년생 모순이나 미비점이 보이거든 무시하지 말라. 72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라라. 84년생 생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행운의 숫자 : 84, 88	42년생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다. 54년생 시작할 때 상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66년생 형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용이하다. 78년생 관례시킴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52, 36
37년생 곤혹스러움이 보인다. 49년생 보자마자 추측할 수 있느니라. 61년생 정성을 다한다면 좋은 길로 이르리라. 73년생 골이 깊어지면 서자 변동은 재촉하는 모습이다. 85년생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2, 41	43년생 위험이 예견된다면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55년생 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이득은 미미하다. 67년생 우연을 가장한 방문자가 보인다. 79년생 변화에 대처하는 새로운 감각과 실행이 요구된다. 행운의 숫자 : 27, 53
38년생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낫다. 50년생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62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74년생 불행적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뺏기 겠다. 행운의 숫자 : 03, 66	44년생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님을 알라. 56년생 근면함과 겸손함이 복을 부르리라. 68년생 듣는 이가 많아서 유리한 국면을 점하게 되리라. 80년생 할리성이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3, 61
39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머지않아서 호전 되겠다. 51년생 대동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볼아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유리한 상황이 조성 될 것이다. 75년생 무리한다면 공든 탑도 무너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4, 07	45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 번 나은 것이다. 57년생 상대적인 변수가 나타나리라. 69년생 직접 모색하는 것이 낫고하고 제일 낫다. 81년생 시치미를 떼고 대연하게 있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78, 18
40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보일 수도 있겠다. 52년생 힘차게 두드린다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64년생 모르고 있으면 더 나은 뻔한 일이 보인다. 76년생 실질적인 관계를 성립 시키는 단계에 이르다. 행운의 숫자 : 16, 24	46년생 편승하는 방법 또한 관중했다. 58년생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구리위하는 격이다. 70년생 맞대응 하려 하지 말고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82년생 작은 일을 잘 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 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0, 55
41년생 규모와 상관없이 중차대한 일이다. 53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65년생 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니라. 77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숙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3, 09	47년생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는 모습이다. 59년생 관심 있게 살펴보면 파악할 수 있으리라. 71년생 더불어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날이니라. 83년생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8, 6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김추자가 33년만에 돌아왔다

‘원조 디바’ 김추자(63)가 돌아왔다. 무려 33년 만의 귀환이다. 강렬한 무대로 세상을 흔들어놓고 갑자기 가요계를 떠났던 그의 표정에는 어서 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수십 년만의 외출에도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그는 다음 달 초 새 앨범 ‘잇츠 나트 투 레이트(It's Not Too Late)’...‘몰라주고 말았어’를 발표하고 전국 공연에 돌입한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추자는 “오랜 세월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주시는 팬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더 늦기 전에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다.

1969년 데뷔한 김추자는 신중현 사단의 대표 가수로 ‘늦기 전에’, ‘커피 한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등의 히트곡을 내며 1970년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육감적인 율동, 시원하면서 몽환적인 창법, 묘한 쿿소리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댄스 음악 최초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여가수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80년 음반을 발표하고 1981년까지는 방송에 출연했지만 결혼하면서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2000년 미국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등지에서 공연했지만 국내에서는 공연을 열거나 새 음반을 내지 않았다.

이날 그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쓰고 화장장에 등장했다. 꽃잎이 세운 등과 날카로운 시선, 머리칼을 쓸어넘기는 동작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동안 살림살이하고 애 키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많이 노력했죠. 30년 이상을 평범한 엄마로 살다가 다시 무대에 선다는 생각을 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이 들면서 흥분돼요.”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 갑자기 무대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연예계 생활 당시 ‘간첩이다’, ‘CIA’라는 그런 얘기(루머)를 많이 들었다. 그때는 노래하기가 싫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사실 결혼 생활이 저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컴백) 마음을 먹은 건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소화할 수 있어서죠. 더 늦기 전에, 목소리가 더 맑아지기 전에 (팬들께) 들려 주고 싶었어요.”

“딸이 ‘엄마는 왜 노래를 안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늦었다고 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노래해라. 좋은 재주를 아끼면 무맛이다.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응원했었어요.”

6월 2일 발매되는 새 앨범은 주로 과거 미발표곡으로 채워졌다. 신중현의 ‘몰라주고 말았어’, ‘내 곁에 있듯이’, ‘고독한 마음’을 비롯해 이봉조의 ‘하늘을 바라보소’, 김희갑의 ‘그대는 나를’ 등 총 아홉 곡이 실렸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번에 녹음하며 노래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동안 음악에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옆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부르기가 어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앨범 발매에 이어 6월 28~29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D홀에서 콘서트 ‘늦기 전에’를 열 예정이다.

“제가 노래를 잘 불렀으면 결과가 좋고, 잘 못 불렀으면 좋지 않겠죠. 노래를 못 부르는데 결과가 좋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웃음) 그래도 이번 음반의 결과가 좋으리라 생각해요.”

과거 그의 댄스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번 공연에서 기대해도 좋을 까. “무대에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욕심나는 배역에 주·조연 가릴 수 있나요”

영화 ‘인간중독’ 이숙진 役 조여정

아망을 좇는 뻔뻔한 아줌마에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가녀린 여성까지.

배우 조여정(37)이 극과 극을 넘나드는 연기로 시선을 끌고 있다. ‘인간중독’에선 야심만만한 이숙진 역을, ‘표적’에선 조신한 의사 부인 정희주 역을 맡으면서다.

성격은 다르지만 극적 비중은 비슷하다. 조연이다. 전작들인 ‘방자전’(2010)과 ‘후궁 : 제왕의 집’(2012)에서 주연을 맡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선택이다. “저는 주·조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떤 캐릭터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걸 하면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주연이 아니어서 동시에 ‘인간중독’과 ‘표적’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고...재밌을 것 같았어요.”

숙진은 남편의 출세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여인이다. 임신을 위해 남편 김진평(송승헌)과 규칙적인 잠자리를 갖고, 남편 부하의 아내들을 염하게 ‘다스리는’ 군 고위 간부의 부인 역이다.

“연기의 팔 팔 정도는 ‘안경’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마치 ‘마스크’(김 케리 주연의 영화)처럼, 안경을 끼면 ‘그분’(숙진)이 오신다고 할까요? 어떤 걸 해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전제인 언니는 평소 제가 워낙 좋아하던 배우였어요. 팬이었는데, 같이 불는 장면에서 케미(호흡·교감)가 좋았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재밌었어요.”

조여정은 ‘인간중독’의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김진평이라는 캐릭터에 깊게 빠져들었다고 한다. 진평과 가까운 범상치 않은 사람이 아름다웠다. 그런 아름다움의 뒤에는 숨 막히는 현실이 있어야 했다. 둘의 사랑이 더욱 불타오르도록 만드는 기폭제 역할. 조여정은 숙진이 마음에 들었다.

“시나리오를 읽고 많이 울었어요. 김진평의 대사를 거의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의 사랑에 마음 아팠는데, 제가 진평을 숨

간첩 · CIA 루머 때문에 떠나
앨범 「잇츠 나트 투 레이트」 발표
6월 28~29일 코엑스서 콘서트



막히게 해놔야 둘의 사랑이 더욱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숙진을 맡으면 흥미로울 것 같았어요.”

사실 욕망의 부분집합이라는 점에서 인간 조여정도 그가 연기한 캐릭터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연기를 하고픈 욕망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비등점까지 올라갈 때 즈음이었다.

“10년이나 연기했는데 답은 없고, 연기에 대한 갈증은 점점 커가고, 연기라는 건 영원한 짝사랑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자포자기 할 때였다. ‘방자전’의 김대수 감독과는 그런 시기에 만났다.

“저는 그날그날이 중요해요. 멀리 못 봐요. 오늘 인터뷰하면 새 내일 일 생각하는 걸 못 견뎌요. 사실 그날 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때,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비록 늦고 돌아 한참 뒤에 만들어질지라도 말이죠.”

연출뉴스